부탄 문화재 복원, 日 전통기술 접목

전통불화 '탕카' 훼손 심각… 복원 프로젝트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히말라야의 불교국가 부탄. 몇 세기에 걸쳐 소중히 지켜온 불교미술을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불교문화재 수리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다. 불교를 인연으로 연결된 두 나라의 이야기를 지난 3월 26일 '야후 재팬 뉴스'가 특집으로 보도했다.

부탄의 수도 팀푸 교외에 설립된 '탕카 보존복원센터'에서는 부탄왕실의 지원 하에 스님과 재가자들이 탕카의 보존과 복원기술을 배우고 있다. 탕카란 족자형식의 티베트불교 전통불화로 석회를 바른 면포에 그리거나 자수로 수를 놓아 조성한다.

복원센터 소장인 켈상 최댄 타시 왕녀는 "본 센터의 목적은 탕카를 시작으로 조각과 건축 등 부탄불교의 성보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고 설립의의를 전했다. 이어 "부탄 전국에는 2,2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다. 각 사찰마다 평균 70점의 탕카를 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복원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다.

현재 센터에서 보존과 복원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와타 유리코 연구원은 "부탄에서는 오래된 탕카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조성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있다. 그 결과로 복원기술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오래된 탕카들의 보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 인근 '탕카 복원센터'
스님 7명 복원작업 몰두해
"서양기술 더 과학적이지만
불교사상 없어 日과 협조"

이 연구원은 또한 "수리는 단지 원래의 것을 고치는 것이지만, 복원은 최소한의 처치로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어디를 어떻게 복원했는지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현대의 복원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원센터는 일본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복원기술을 부탄에 전수, 최종적으로 부탄의 기술로만 문화재를 복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탕카보존센터에서 탕카를 복원하는 스님들. 사진출처=야후뉴스

소장인 켈상 왕녀는 여러 문화재 복원기술 중 일본의 전통기술을 택한 이유로 "일본의 복원기술은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이 균형 잡혀있다. 서양의 복원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일지는 모르나 거기엔 불교적인 사상이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불교를 전하는 나라로, 장인정신이 깃든 기술을 가진 것이 일본의 복원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탕카의 비단장식을 복원하는 우갠 도르제 스님은 "절에서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을 받아왔다. 손재주를 더 좋은 데 회향하고 싶어 자원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에는 부탄 각지에서 온 스님 7명이 복원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도르제 스님은 "복원하는 탕카들이 너무나 오래돼 다룰 때마다 긴장하고 있다. 최근 복원한 탕카는 비단이 모두 삭아 새로 만들 정도였다. 보통 하나의 탕카를 복원하는데 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켈상 왕녀는 "부탄은 이웃나라인 인도나 중국에 비하면 작은 국가다. 그렇기에 전통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부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뒤 "최근 외부문명과 접촉이 늘면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급속도록 서구화되고 있다. 일본과 부탄은 같은 불교국가로 많은 가치관은 공유하기에 서로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길 바란다"고 센터의 운영 의의를 전했다.

박물관 수놓은 입체만다라 세계

도쿄국립박물관 특별전 '쿠카이와 불상만다라' 학술대회 · 특별공연도

일본에 처음 진언밀교를 전한 쿠카이(空海) 스님이 조성한 입체만다라가 박물관에 펼쳐진다. 3월 26일 일본의 '산케이뉴스'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된 특별전 '국보 토지(東寺)-쿠카이(空海)와 불상만다라'를 특별 보도했다.

교토의 남쪽에 위치한 사찰 토지(東寺)는 823년 일본조정이 쿠카이 스님에게 하사,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전란 속에서도 큰 훼손 없이 도량이 유지돼 왔다.

쿠카이 스님은 자신의 저술인 〈어청래목록(御請来目録)〉에서 "밀교는 심오해 문장으로 모두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도상을 빌려 깨닫지 못한 이를 열어 보인다"고 설명한 만큼 토지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하고 풍부한 불교미술 작품이 소장돼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 펼쳐진 입체 불상만다라. 사진출처=요미우리신문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제1장 '쿠카이와 후칠일 어수법(御七日御修法)', 제2장 '밀교미술의 지보', 제3장 '토지의 신앙과 역사', 제4장 '만다라의 세계'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명필로 유명했던 쿠카이의 친필작품들과 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쿠카이가 개창한 진언종에서도 비밀로 붙여져 행해지는 의식인 '후칠일 어수법'의 도량이 최초로 재현된다. 제2장과 3장에선 토지에 소장중인 다양한 불교미술품, 문서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채색만다라가 공개된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는 제4장이다. 토지의 강당에 봉안된 입체 불상만다라 21구의 불상 가운데 15구가 한꺼번에 전시된다. 지금껏 여러 차례 열렸던 토지 특별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360도로 볼 수 있게 전시됐다. 토지의 입체만다라 불상은 쿠카이의 감독 하에 조성돼 일본 밀교조각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유물들 가운데 국보는 약 30건, 중요문화재는 60여 건이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 측은 '사상최대의 전시회'로 선전 으며, 전시회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특별전은 오는 6월 2일까지 개최되며, 전시회 기간 동안 관련 학술대회와 특별공연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Buddha' 철자 되찾은 印尼 불교도

인니 정부, 수십 년 걸려 'Budha' 오기 인정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잘못 표기된 '불교도(Budha)'가 바른 철자인 'Buddha'로 정정됐다. 3월 29일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이 정정으로 인도네시아 불교도들의 권리가 한층 더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불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된 6개 종교(불교 · 이슬람 · 가톨릭 · 개신교 · 힌두교 · 유교)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민들의 신분증에 이 6개 종교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한다. 인도네시아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70만 명의 불교도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불교도들의 표기는 'Budha'로 오기돼 왔다. 인도네시아 불교도들은 이에 반발, 오랫동안 정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공식항의는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명의로 인구조사국과 종교정책부에 접수한 것이다.

마침내 지난 2월 6일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인구조사국에 접수된 항의를 인정, 그동안의 오기였던 'Budha'를 'Buddha'로 정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인도네시아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잔디 무키안토(Jandi Mukianto)는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에 불교도가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를 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잔디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표준어 사전에도 불교도 · 부처를 뜻하는 단어는 Buddha이며, 불교의 고전언어인 빨리어로도 Buddha"라고 이번 정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공동체들은 내무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불교도의 권리가 인정됐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북수마트라 불교도협의회의 부위원장 토니 아치(Tony Aci)는 "오랫동안 공문서에서 오기된 부처님의 이름을 찾았다"고 기뻐했다.

한편 수프리야디(Supriyadi) 종교정책부장은 "정부 관료들의 불교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생겨난 실수"라며 그간의 오기로 불거진 정치적인 의혹을 일축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홍콩 최대 갑부 불교미술박물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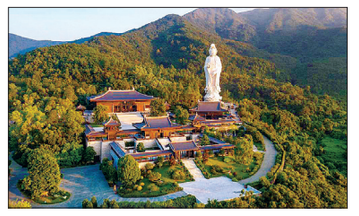
한화 4,500억원 들여… 5월부터 공식 개관 예정

홍콩의 신계(新界) 타이포(Tai Po) 지구에 위치한 사찰 츠샨스(慈山寺)에 불교미술박물관이 개관했다. 3월 29일 미술전문 인터넷 매체 '아트넷'은 홍콩에 최초로 개관할 불교미술박물관에 대해 보도했다.

츠샨스는 홍콩 최대 갑부이자 불교신자로 유명한 리카싱(李嘉誠) 청쿵그룹 회장이 세운 사찰이다. 5억 홍콩달러(한화 약 2,100억원)를 희사한 사찰로 2015년 대중에 공개했다. 츠샨스의 상징은 76m 높이의 관세음보살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음상이다. 츠샨스는 대중에 공개한 이래 도량의 경건한 분위기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참배객을 하루 4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의 참배객들이 츠샨스를 방문했다.

리카싱 회장은 사찰을 세운 것에 이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교미술 작품들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박물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리 회장 측은 "박물관은 관음상 지하에 개설될 예정이며, 100구의 불상과 43개의 돈황사본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관할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불교미술에 대한 감동의 여정을 느끼고, 청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2,229㎡(약 670평)의 규모로 4억 달러(한화 약 4,54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세워질 예정이다.



박물관이 세워질 츠샨스 전경. 사진 속 관음상 지하에 박물관이 들어섰다. 사진출처=아트넷

소장품들은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리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1980년 설립된 리카싱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것이다. 간다라 불상을 시작으로 중국, 티베트, 일본, 캄보디아 등 불교가 전파된 주요 지역의 다양한 양식의 불상들이 시대별로 모여 있다.

지난 3월 27일 2,000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개관한 츠샨스 불교미술박물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지만 입장에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조우인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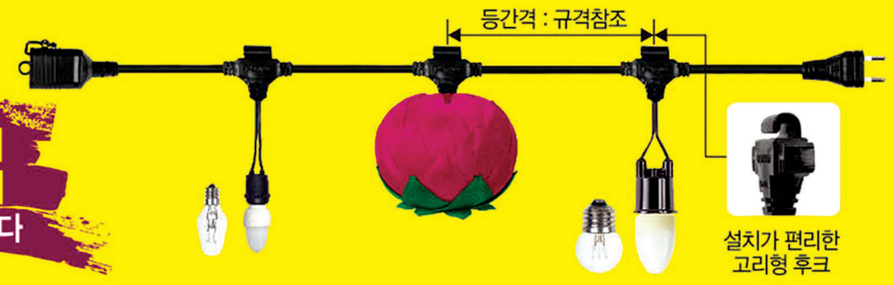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ISO 9001 인증기업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